

광주 하남농협 이상한 조합장 권한대행 '눈총'

조합장 공석에 이사 9명이 한달씩 대행...급여 1000만원씩 받아

광주 하남농협이 비위 혐의로 구속된 현직 조합장의 권한을 9명의 이사가 각각 1개월씩 나눠 맡으면서 1000만원 가량의 보수를 챙겨 눈총을 받고 있다.

29일 하남농협에 따르면 지난 5월 A모(67) 조합장이 조합원들에게 추석 선물로 10만원 상당의 굴비를 돌린 사실이 밝혀져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조합장이 구속되자 하남농협은 곧바로 이사회를 열어 전체 9명의 이사가 조합장 권한대행을 1개월씩 맡기로 결정,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7명의 이사가 조합장 권한대행 업무를 맡았다. 앞으로 내년 2월까

지 나머지 2명의 이사들도 조합장 권한대행을 맡을 예정이다. 하남농협은 해당 이사들의 이름을 새긴 조합장 권한대행 명패 9개를 이미 제작한 상태다.

대부분의 지역농협이 조합장 공석사태가 발생하면 이사 가운데 연장자나 다선 이사를 권한대행으로 선정해 조합장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는데 반해 하남농협의 릴레이 권한대행은 이례적이다.

이 때문에 중요 정책 결정에 혼선이 오는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신규 점포 개설, 주유소 사업 진출 등 대규모 사업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또 직원들의 인사 고과 평가 등 정기 인사도 차질

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들 릴레이 조합장 권한대행은 자신들의 급여로 각각 1000만원 가량을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져 조합원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조합원 K모(54)씨는 "지난 7월 열린 대의원 총회에서 월 1000만원 가량의 권한대행 급여 사용처를 묻는 공개 질의가 있었다"며 "대다수 조합원이 현행 이사들의 행위에 부정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하남농협 관계자는 "이사들이 영농에 종사하는 등 개인적인 일로 1개월씩만 근무한 뒤 사직해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전체 이사들이 조합 업무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등 긍정적 효과도 있다"고 해명했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광주 서구 어르신 10명의 특별한 자서전

70세 최찬규씨

중졸 불구 인생 파고 헤치고
은퇴 뒤엔 대학졸업장 따
재능기부·봉사로 제2인생 열었죠

67세 염정순씨

지나고 보니 못견딜 일 아니었네
좋았던 사람들, 미워했던 사람들
모두가 귀한 인연이었다

'국제시장' 덕수처럼 살아온 삶 순간순간이 살아있는 역사였네

'이름없는 개인 일생도 역사'
뜻깊은 출판기념회 열어
펼쳐 직접 만나 교훈 얻고
아내에 바치는 시 담기도



10명의 어르신들이 29일 광주 서구청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자신들의 자서전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광주 서구청 제공>



어르신들의 자서전

해방 직후인 1946년 '강촌'이었던 승주군(현 순천시) 송광면에서 태어난 최찬규(70) 할아버지는 가난이 무엇인지도 모르던 어린 시절 풀뿌리와 나무껍질로 보릿고개를 넘었다. 성인이 되어서야 일제의 수탈로 힘겨운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어머니를 일찍 여리고 가정 형편도 넉넉지 않았던 탓에 그는 중학교만 졸업하고 광주로 올라와 이용사자격을 시험을 봤다. 일하면서 공부를 할 요량이었지만 여의치 않았고, 결국 입대를 결정했다. 운명의 장난처럼 월남파병부대인 백마부대에 배치돼 베트남에서 수많은 전우를 잃기도 했다. 전역 후 그는 평범한 가장이 되어 아들들을 키우고, 10년 전 은퇴했다. 중학교 학력이 전부였던 최 할아버지는 은퇴 후 10년 동안 조선이공대와 광주대를 졸업하고, 재능기부와 봉사활동을 하면서 노년을 보내고 있다.

올해 고회를 맞은 최 할아버지는 29일 자서전 '인생 2막을 도전과 열정으로'를 펴냈다. 이날 오전 광주시 서구청에서는 최 할아버지 등 서구지역 어르신 10명의 자서전 출판기념회가 열렸다. 이들은 지난 8월부터 작가들의 도움을 받아 책으로 자신들의 인생을 정리해 각각 120~160 페이지 분량의 자서전을 만들었다.

'이름 없는 개인의 일생도 역사'라는 이날 출판기념회의 주제처럼 어르신들이 살아온 인생의 순간순간은 교훈을

주는 하나의 역사였다. 격변의 시대를 관통하며 살아온 영화 '국제시장'의 주인공 덕수의 이야기,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야기가 자서전에 빼곡히 담겨 있다. 보릿고개, 6·25전쟁, 군사독재, 산업화 등 수많은 우여곡절을 웃음과 눈물로 보낸 70~80년 인생은 한편의 영화처럼 다가왔다.

이들은 힘겨웠던 시절을 '고통'으로만 기억하지 않았다. 그 시절들을 겪으면서 자신들이 얼마나 더 단단해지고, 새로운 원동력을 얻었는지 책을 통해 회고했다.

해방둥이로 태어난 박정춘(70) 할아버지는 여순반란사건과 6·25전쟁을 겪으면서 24명의 일가친척을 잃은 유년시

절, 인생의 동반자를 만나 삼 형제를 키운 사연, 그리고 자녀들의 일기와 글들을 '봉산골 웅달샘 이야기'에 풀어냈다.

힘들게 중학교에 진학한 정영진(77) 할아버지는 2학년 때 광주에서 소설 '대지'로 노벨문학상을 받은 펄벅을 직접 만났다. 당시 펄벅에게 들었던 '용기는 절망 속에서 싹트는 것이다'라는 말은 평생 가슴 속에 메아리가 됐다.

참가자 중 가장 연장자인 양일현(83) 할아버지는 매일같이 서구 상록도서관에 나와 한 자 한 자 적어가며 '푸른 바위에 앉다'라는 자서전을 완성했다. 세상을 먼저 떠난 아내를 생각하며 직접 지은 '그리운 아내에게'라는 시를 담았고, 위암 투병을 하며 적었던 일기도 함께 실었다.

600년 전통의 종가 며느리가 되어 힘들었지만 시부모님께 사랑을 받았던 사연, 섬마을 선생님이로 일했던 이야기 등을 자서전 '덕은 반드시 이웃이 있어 외롭지 않다'에 담은 염정순(67) 할머니는 "당시는 심각했던 것들도 지나고 보니 못 견딜 일은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좋았던 사람들, 미워했던 사람들 모두가 귀한 인연이었다"고 회고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광주선관위, '홍보 관공' 총선 입지자 등 11명 고발

전남선관위는 특별단속 나서

광주선관위관리위원회는 29일 내년 4·13 총선 출마예정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을 결성한 뒤 유권자를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출마예정자 A씨와 전직 시·구의원 등 11명을 광주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 11명은 지난 5월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인 산악회를 결성한 뒤 같은 해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간 15회에 걸쳐 관광행사 등을 진행하면서 유권자 6000명을 대상으로 A씨의 업적과 공약을 홍보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선거구 주민들은 주축 측이 벌린 버스에 40명씩 나눠 타고 전남·북 관광지를 방문했으며 주·도시락·간식·수건 등

을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한 명당 2만원씩 회비 명목으로 냈지만 교통비·식비·기념품 등을 포함하면 전체 경비는 회비를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선관위는 보고 있다.

도선관위는 내년 총선이 10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종 선거법 위반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올 들어 지난 28일 현재 고발(16건)·수사의뢰(6건)·경고(147건) 등 모두 169건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광주는 고발 1건이며, 전남은 경고 4건이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마약 투약·판매 12명 적발

순천경찰은 지난 7월부터 마약류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마약을 판매·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43)씨 등 7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경남 창원 지역의 집에서 필로폰을 4차례 투약하고, 다른 4명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나머지 구속자 등은 모두 1~2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교도소에서 출소한 김씨가 현장 근로자들과 필로폰을 투약하고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 김씨 등을 검거하고 필로폰 0.1g과 1회용 주사기 65개를 압수했다.

경찰은 인터넷을 통해 마약을 샀다는 김씨의 진술에 따라 구입경로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실종 60대 여성 흥기 찢려 숨진 채 발견

이웃집 여성 자살과 연관 수사

여수에서 60대 여성이 연락이 끊긴 지 5일 만에 흥기에 찢려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현재까지 살해 용의자가 특정되지 않은 가운데 살해된 여성의 옆집에 사는 60대 여성이 이를 전 목을 매 자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찰은 두 죽족의 연관성을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29일 여수경찰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전 11시39분께 여수시 소라면 한 마을 발 인근 배수로에서 A(여·64)씨가 숨져 있는 것을 A씨의 둘째 아들(33)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A씨의 시신은 밭에서 사용하던 부지포와 비로 포대 등에 덮여 있었으며 머리와 목, 발목 등에는 흥기에 10여 차례 찢린 흔적이 발견됐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3시30분께 은행에서 집으로 돌아온 뒤 행방이 묘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가족은 지난 25일 '어머니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은 시신에 금품이 그대로 남아 있는 점 등으로 미루 원인에 의한 살인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경찰은 A씨와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지낸 B(여·66)씨의 자살과 이번 사건의 연관성을 파악하고 있다. B씨는 A씨가 사라진 다음날인 24일 밤 11시께 본인의 집 뒷간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B씨 집을 수색했으며, 일부 물건을 압수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레 찢린 흔적이 발견됐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3시30분께 은행에서 집으로 돌아온 뒤 행방이 묘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가족은 지난 25일 '어머니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은 시신에 금품이 그대로 남아 있는 점 등으로 미루 원인에 의한 살인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경찰은 A씨와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지낸 B(여·66)씨의 자살과 이번 사건의 연관성을 파악하고 있다. B씨는 A씨가 사라진 다음날인 24일 밤 11시께 본인의 집 뒷간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B씨 집을 수색했으며, 일부 물건을 압수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술만 마시면 '자살' 상습 허위신고

○술만 마시면 '자살' 상습 허위신고
○술만 마시면 '자살' 상습 허위신고
○술만 마시면 '자살' 상습 허위신고

경찰에 허위신고를 한 뒤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잠적한 30대 남성이 쇠고랑.

○29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구속된 윤모(35)씨는 지난 24일 오후 5시20분께 광주시 광산구 송정동 한 숙박업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상황실과 자살예방센터에 전화를 걸어 '자살하겠다'고 신고한 뒤 자취를 감추는 등 지난달 15일부터 최근까지 30차례에 걸쳐 허위신고를 한 혐의.

○경찰 관계자는 "'농약을 마시고 자살하겠다'는 A씨는 숙박업소에서 태평하게 술을 마시고 있었다"며 "지난 2월에도 인천에서 28차례에 걸쳐 허위신고를 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MG여성만세예금"이란?

알뜰한 당신에게 "MG여성만세예금"을 추천합니다.

만 18세 이상인 여성들에게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출금 통장!

(단, 수수료 면제 조건이 충족 되어야 면제 됩니다.)

"MG new 정기적금"

예금을 크게 키우는 똑똑한 금융 습관!

가입조건에 따라, 우대이율이 제공되는 정액적립식 예금!

▶ 1년 최대 2.6% 이율 적용

APT, 주택, 상가, 대지 감정가 대비 70% 가능

보증서 담보 대출(햇살론) 최대 2,000만원 가능

임대보증금 대출 보증금 대비 최대 80% 가능

신용 대출 최대 5,000만원 까지 (담보대출 보유시 우대금리 적용)

※ 당사가 정하고 있는 조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체크기 설치 및 유지 보수 관리(결제계좌 변경시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 건수에 따라 유지보수 수수료 지원 가능